

## 교회 소식

- 오늘부터 주일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립니다.  
교육부와 영어예배도 같은 시간에 드립니다.  
한어예배는 Youtube로,  
중고등부/영어 예배는 Zoom 으로 실황을 중계합니다.
-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준수합니다.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 확진자 근접 접촉 등이 있을 경우 경과를 지켜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일(8월 1일)에는 모잠비크에서 사역하시는 정명섭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SMVP(세이프 미션 백신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백신을 맞으신 후 8월 중순 아프리카로 돌아가십니다.  
<https://www.safemvp.org>  
<https://www.facebook.com/SafeMVP/>
-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선교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김정희 집사 (시편 51:1-12)
- 친교: TBA

## 예배 안내

- **주일예배:** 2:00pm, YouTube
- **English Service:** 2:00pm, Zoom
- **새벽기도 (월-토):** 6pm, YouTube
-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2:00pm
- **중 · 고등부(Youth Group)예배:** 2:00pm, Zoom
- 주일예배처소: 448 Bedford Rd, Armonk, NY 10504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http://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939 020 5125 (EM/Youth)

## 성경 공부 및 모임

- **성경공부:** TBA
- **중 · 고등부 성경공부:** 금요일 8pm (Zoom)
- **구역모임:** TBA

## 섬기는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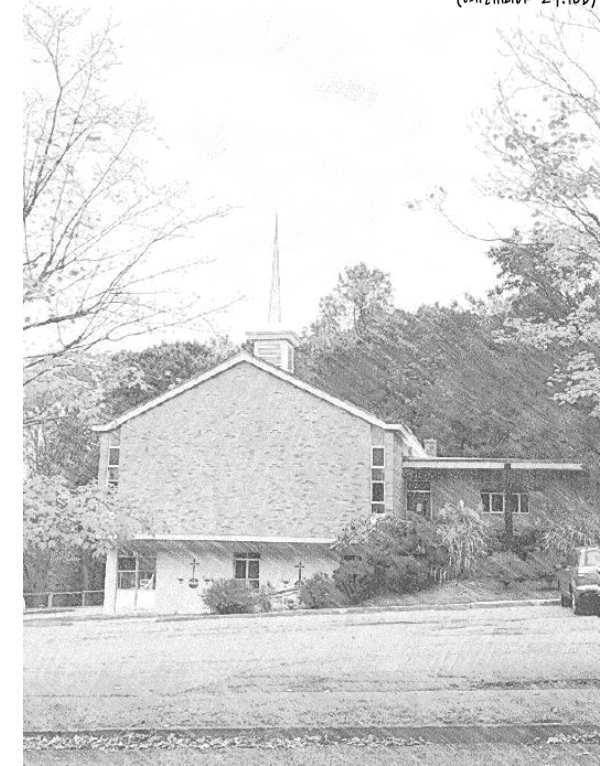
- **담임목사:** 이민영
-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 기도

-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에베소서 29:10b)



## 교회 연락처

주소: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mailto: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http://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http://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Order of English Service

<12p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Together  
 Call to Worship -----Together  
 Worship & Praise -----Together  
 Confessional Prayer-----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Ezra 3:10-13**----- Leader  
 Sermon----- **“Time to Rebuild”**-----Pastor Kim  
 Reflection Prayer-----Together  
 Benediction -----Pastor Kim



Memo

주일 예배 순서

<오후 1시 30분>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위한 묵상 ----- 인도자  
**Worship Meditation**  
 \*예배로의 초대 --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함께  
**Call to Worship**  
 \*신앙고백-----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10(34) “전능왕 오셔서”----- 다함께  
**Hymn Thou Almighty King**  
 대표기도 -----시편 14편 ----- 김희철 집사  
**Prayer Psalm 14**  
 봉헌-----“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함께  
**Offering**  
 성경봉독 -----**마태복음 23:36-24:2**----- 인도자  
**Word of God Matthew 23:36-24:2**  
 설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민영 목사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찬송-----447(448) “이 세상 끝날까지”----- 다함께  
**Hymn O Jesus, I Have Promised**  
 \*축도-----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설교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태복음 23:13-39

심하고 아픈 말씀 앞에 기로에 서있습니다. 위선자인 “그들”의 이야기로 돌려버리거나, “은혜”로 덮기에는 예수님의 책망은 너무나 절실하고 정확합니다.

말씀에 정죄 받지 않고 위로만 받고자 하면 그 위로도 거짓으로 만들고 만니다. 잘못을 깨우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용서를 특권으로 여겨,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회개하고 용서하여 다시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길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짜 뉴스가 됩니다.

그러나 누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없다면, 이 말씀은 치료의 방법이 없는 죽을 병을 정확히 진단한 잔인한 선고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과연 다음 날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싫어한 유대인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하나님을 싫어하여 죽인 우리들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이 말씀을 정직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로 돌려거나, 내 속의 죄를 회칠로 덮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 이 정죄는 온전히 우리 것이 됩니다. 거기서 회개와 용서와 회복과 종생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설교는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 하나님의 공의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편안하고 승리한 자들이 아니라, 의에 주린 자들, 모든 이들에게 완전한 복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설교는 여덟가지 화를 선포함으로 끝납니다.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유죄 확정에 값을 다 치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 사람으로 삽시다. 이 말씀은 치료하고 세우는 생명이 됩니다.

“예루살렘아!” 음성 속의 사랑을 압시다. 뭐라고 책망하시든 완전한 사랑을 믿고 알아갑시다.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어 드립시다. 그의 십자가에서만 의를 발견합시다. 새 사람으로 삽시다.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육신에 속한 옛사람이 아니라, 말씀 따라 주를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새 생명으로 삽시다. 화가 있으리라 하신 바리새인 같은 겉으로 위선이 아니라, 복이 있다고 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르고 지배하는 승리자가 아니라 오히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남보다 높은 자리를 구하는 대신 주님 눈에 긍휼을 보는 자리를 사모합시다.